

제2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 2014. 3. 24(월) 11:00-13:0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서문성의장, 조성환의원, 장민호의원, 박훈성의원, 박연석의원, 최인의원, 김병두
(도연)의원 이상 7명 >

< 배석자 : 민주영 이상 1명 >

< 불참석자 : 권탄준의원, 이문선(덕중)의원, 신동호(거성)의원, 엄성민의원 이상 4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29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재적의원 11명에서 참석의원 7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안)을 자문하고, 금강대학교 학칙 개정(안)과 금강대학교 학사내규(안)을 심의하고자 이렇게 본 평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본 회의 >

사회자 :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서문성 의장 : 항상 학교에 관심과 헌신을 해주시는 도연스님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 해주신 교수님, 팀장님, 학생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3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안)을 자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 박훈성팀장 2013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안) 설명]

서문성 의장 :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교 운동장 조성공사에 필요성을 많이 느껴 국가 지원하에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5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또한 전원장치 UPS가 노후하여 불가피하게 교체하였으며, 배터리는 4시간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 구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역량사업으로 대교협과 부득이한 본교 사정을 이야기한 끝에 강당 및 무선 웹 부분에 대하여 지원받아 구축하였으며 통합위협관리시스템은 의무적 사항으로서 구축하였습니다.

학생 인원 증가에 따라 학비감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수입은 3억으로 입학금은 1억5,900만원, 수업료는 1억 7,864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어캠프는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교에서 시행하지 못해 예산대비하여 미수액이 발생하였습

니다. 그럼 각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김병두(도연) 의원 :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시설부분에서 내년의 보수교체나 수선시설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문성 의장 : 에듀클래스에서 학생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스템 변경으로 약 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일부 지반 침하로 인하여 기숙사로 갈때 보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려 합니다. 그 외 강의실의 현대화 구축, 강당 조명설치는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가 구형으로서 교체될 예정이며 작업트럭의 노후로 인하여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하여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병두(도연) 의원 :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어학연수와 봉사활동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들이 다녀오면 평가자료로서 정리가 되는 건지요?

조성환 의원 : 해외어학연수와 봉사활동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2014학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학생들이 반응은 어떤지 등 성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훈성 의원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특정다수를 위한 것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 의원 :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평의원회 자료는 미리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김병두(도연) 의원 : 학생도 평의원 의원 개념이므로 일주일 전에 미리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문성 의장 :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자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심의안건으로 금강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교무지원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지원팀 박연석팀장 금강대학교 학칙 개정(안) 설명]

조성환 의원 : 학생들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의견서가 정리된 첫장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교무지원팀 박연석 팀장 의견서 설명)

조성환 의원 : 학칙의 부칙 중 4학기 이내에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는 문구를 5학기로 늘려 학생들의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연석 의원 : 학생들이 제출한 모든 의견은 학칙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5학기로 늘리는 것은 부칙을 통하여 변경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의견은 학사내규와 교육과정 개편시 정리해야 합니다.

김병두(도연) 의원 : 본 심의는 학칙 개정(안)으로 상정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금강대학교 구조조정(안)으로 상정되어야 했습니까?

박연석 의원 : 재적변경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칙 개정(안)으로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김병두(도언) 의원 : 사실 불교학부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어서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인 의원 :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된 것은 아닌지, 모순이 없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차후에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성 의장 : 본교는 종립대학으로서 불교학부에 사회복지학과가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두(도언) 의원 : 학생들이 의견서에도 기술한 것 같이 명칭정도는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민호 의원 : 이전에 교수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바도 있지만 종단관계자에게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학칙변경이 종단의 구체적인 지시로 이행되었는지 아니면 대학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인지? 두 번째로 개교시부터 있었던 통번역학과에 대하여 학칙 개정(안)취지에 보는 바와 같이 특성화, 안정화를 위해서는 존속해야 하는데 폐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 우리대학의 이러한 선두 모델을 벤치마킹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대학은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두(도언) 의원 : 2011년에 통상통역학과가 분리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교육부에서 구조조정을 제시한 것 같이 학과의 특성화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초장기처럼 전공부분에서 어학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전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1, 2학년의 어학비중을 늘리고 3, 4학년때 전공을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그 어떤 대학보다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커리큘럼에 대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의 대학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명칭이라도 변경하여 특성화를 잘 나타냈으면 좋으리라 봅니다.

조성환 의원 :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변경 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두(도언) 의원 : 큰 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큰 틀 안에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최인 의원 : 학생들끼리 내부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4개학부를 2개학부로 변경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억지로 맞춰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8월에 교육부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미리 통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박훈성 의원 : 8월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이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금번 변경은 2014년 1월 29일에 있었던 대학구조개혁 계획(안)와 2월 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안)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보다 훨씬 강력한 정부의 의지입니다.

최인 의원 : 이러한 변경은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입학생, 졸업생 모두가 학교의 가치관이 맞아서 입학하였는데 정책이 바뀌고 미

래까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지향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의견을 부칙으로서 서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 학생들의 모든 의견을 학칙의 부칙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칙과 학사내규 등 앞으로 제도화로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칙에서 4학기 재적변경을 5학기로 변경시키고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 의원 : 그럼 추후 상황은 교무지원팀에서 학생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병두(도연) 의원 : 이번은 2011년도 다를 것입니다. 학교법인과 대학, 종단, 학생들이 서로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하여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환 의원 : 학과 특성화는 종단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학교에 의견을 내려보내주 시면 거기에 맞게 학과의 특성화를 맞추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문성 의장 : 하지만 액션플랜의 주체는 각 학부의 학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김병두(도연) 의원 : 저는 대학발전위원회의 원안을 동의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칭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 의원 : 이렇게 변경될 수 밖에 없어서 제3의 명칭을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생입장으로서 3개 학부가 존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박연석 의원 : 부칙에서 4학기 재적변경을 5학기로 변경하고, 차후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하여 정리해주시면 학칙에 따른 운영은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서문성 의원 : 대학구조조정이 되면 개혁시스템도 시작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민호 의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의회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다른 회의와 달리 종단스님이 참가하여 종단에게 본교의 입장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학부명칭과 부칙도 중요하지만 특성화가 중요합니다. 본교의 통번역학과는 이미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잘 일구어놓은 것을 폐지하고 타 대학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폐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김병두(도연) 의원 : 1, 2학년은 어학, 3, 4학년은 전공을 하는 학교는 없으리라 봅니다. 기존에 통상통역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각 트랙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려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2011년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냥 회계만 하는 학과와는 틀립니다. 국내와 국외를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종단 입장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잘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 의원 : 학제개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학생들이 안정화되어 공부만 전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의원회의 구성 중 학생을 추가적으로 2명 늘리는 것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학생들과의 소통을 거

듭 부탁드립니다.

서문성 의장 : 학생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칙 중 재적변경의 학기를 5학기로 변경하고, 학부 명칭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경=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체 의원 : 동의합니다.

서문성 의장 : 그럼 다음으로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교무지원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지원팀 박연석팀장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안) 설명]

김병두(도안) 의원 : 분반을 이렇게 하면 구성원 모두가 다 좋은 혜택을 받으니까?

서문성 의장 : 그렇습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분반기준을 7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한다면 교수 및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강대학교 학사내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체 의원 : 동의합니다.

서문성 의장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칩니다.>